

# 브라보 안산



제 388 호 2015년 1월 21일 발행

발행인 안산시장 제종길  
발행처 안산시 단원구 화랑로 387 안산시청 공보관

무료 정기구독 신청

TEL : 031-481-2042 FAX : 031-481-3224 E-mail : bravo@iansan.net

안산시와 SNS로 친구맺기

[b blog.naver.com/cityansan](http://blog.naver.com/cityansan)

[t twitter.com/ansancityhall](https://twitter.com/ansancityhall)

[f facebook.com/ansancity3](https://facebook.com/ansancity3)

[story.kakao.com/ch/ansancity](https://story.kakao.com/ch/ansancity)

## 02면 특집 / 교육

겨울방학, 도서관에서  
함께 성장하는 아이들

## 04면 생활·경제

안산시 출산장려 프로그램 '다양'

## 06면 생태·관광

봄이면 금개구리 만날 수 있어요

## 08면 문화·예술

안산이 낳은 프로야구  
김광현 선수와의 일문일답



방학을 맞은 아이들이 동네 작은도서관에서 함께 생활계획표를 짜며 웃고 있다. 도서관에서 하루를 시작하는 아이들의 미소가 해맑다.

사진 김진국 명예기자

# 겨울방학, 도서관에서 함께 성장하는 아이들

## 단원구·상록구 도서관, '제90회 겨울독서교실' 진행해



여주며 “우리의 문화 한류가 세계로 퍼져나가는 시기에 전 세계에 올바른 역사를 알려야 한다”고 말했다.

관산도서관 관계자는 “추운 겨울, 늦잠의 유혹을 뒤로하고 도서관 프로그램에 참여해 독도의 의미를 되새기고, 독도분쟁 외에도 중국 영토분쟁 등과 관련된 역사를 알아가는 아이들이 대견하다. 방학을 알차게 보낸 아이들이 성장하는 만큼 도서관도 진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상록구는 감골도서관을 중심으로 상록어린이·성포·본오·부곡·일동도서관과 함께 ‘옛날 사람들은 어떻게 살았을까?’를 주제로 1월 12일부터 16일까지 독서교실을 열었다.

전통떡 꽃산병 요리와 전통책, 연을 만들며 세시풍속 등 옛날 사람들의 생활을 알아보고 오늘날과 비교해보는 시간을 가졌다.

안산시 도서관은 이외에도 저학년용을 위한 방학특강, 토탈공예, 독서치료, 독서토론 등 방학을 맞은 아이들에게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다.

신선영 명예기자 (woghkah@hanmail.net)

안산시 공공도서관은 겨울방학을 맞아 초등 고학년을 대상으로 '제90회 겨울독서교실'을 진행했다.

안산시 대표도서관인 중앙도서관은 1월 12일부터 16일까지 글쓰기와 북아트, 연극 프로그램을 통해 훈민정음, 불국사, 창덕궁, 수원 화성, 무형문화재와 판소리 등 '우리의 세계문화유산'에 대해 깊이 알아보았다.

단원구는 관산도서관을 중심으로 단원어린이도서관, 원고잔도서관과 함께 '우리 땅 독도'를 주제로 글쓰기, 플래시몹, 독도 모형만들기, 연극, 「반크(VANK) 역사바로찾기」의 저자 이다의 특강을 진행했다.

1월 12일부터 16일까지 5일 동안 매일 3시간씩 아이들은 독도의 가치와 중요성에 대해 알고 행동하는 독도지킴이로서 '독도는 우리 땅' 플래시몹을 배우고, 독도 모형을 만

들고, 연극과 글쓰기를 통해 독도에 대한 자부심을 키워나갔다.

독서교실 마지막 날, 관산·단원어린이·원고잔도서관 독서교실 참가자와 학부모들은 관산도서관 시청각실에서 함께 특강을 들은 뒤 독도 플래시몹을 무대에 올리며 수료식을 자축했다.

반크의 이다 씨는 일본의 역사 왜곡 실태와 독도가 우리 영토인 결정적 이유를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태어날 때부터 DNA에 흐르는 반일감정으로 우리는 일본에 감정적인 대응을 하면서도 일본 제국주의의 영웅을 캐리커화한 만화 영화 등 문화침략을 간과하고 있다”며 안타까워했다.

또, 이순신 장군의 매력에 푹 빠진 미국 만화가 '온리 콤파'의 만화책 「Yi Soon Shin: Warrior and Defender」를 보



## 유아부터 청소년·성인을 아우르는 도서관 문화행사, 놓치지 말아요

### 단원어린이도서관, '신나는 과학나라', '설빔&열두 동물 이야기'

단원어린이도서관은 1월 22일(목)부터 1월 30일(금)까지 초등 저학년과 고학년으로 나누어 '신나는 과학나라', 1월 24일(토)에는 유아와 초등 저학년을 대상으로 주말 도서관 책놀이 '설빔&열두 동물 이야기'를 운영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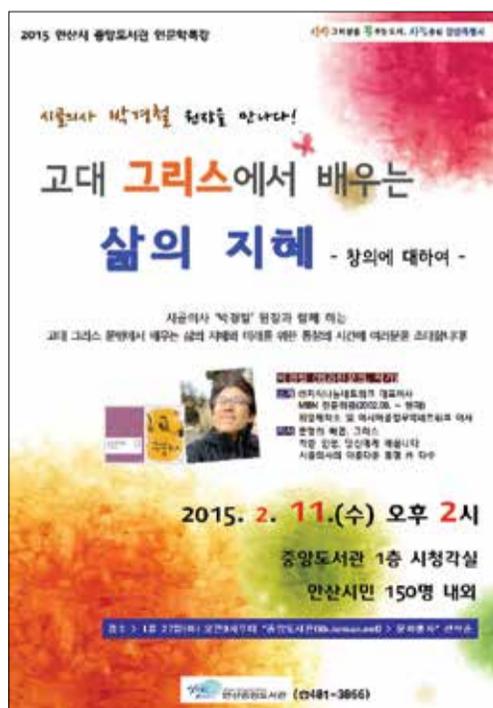
### 본오도서관, '꼬물꼬물 공작교실'

본오도서관은 1월 27일(화)부터 1월 30일(금)까지 6~7세 유아를 대상으로 '꼬물꼬물 공작교실'을 진행한다. 선정 도서를 읽고 클레이, 쿠키만들기 등 다양한 독후활동을 한다.

### 중앙도서관, 시골의사 박경철의 인문학 특강 '고대 그리스에서 배우는 삶의 지혜'

중앙도서관은 2월 11일(수) 시골의사 박경철의 인문학 특강 '고대 그리스에서 배우는 삶의 지혜'를 연다.

외과전문의 박경철 원장은 본명보다 시골의사라는 필명으로 더 잘 알려져 있다. 이 시대 최고의 지성인으로 손꼽히



는 그는 냉철한 경제전문가, 통찰력 넘치는 칼럼니스트, 베스트셀러 작가, (주)지식나눔네트워크 대표이사, MBN 전문위원, 희망제작소와 아시아공정무역네트워크 이사로 중

황무진 활동중이다.

의대생 시절 자연스럽게 삶과 죽음에 관심을 갖게 되었고 점차 인간과 문명으로까지 그 관심 영역을 확장했다. 특히 이십대 청년 시절 니코스 카잔차키스의 작품을 읽으며 서양 문명의 배꼽인 그리스 기행을 꿈꿔왔다. 가슴에 묻어 두었던 꿈을 펼치기 위해 지천명을 앞두고 그리스를 비롯해 세계 곳곳의 문명을 순례하는 노마드의 삶을 새롭게 펼쳐치고 있다.

저서로는 「시골의사의 아름다운 동행」, 「시골의사의 부자 경제학」, 「착한 인생, 당신에게 배웁니다」, 「문명의 배꼽, 그리스」 등이 있다.

이번 특강에서는 문명의 탄생과 성장 그리고 쇠락의 흐름을 역사적·철학적으로 돌아봄으로써 과거를 성찰하고 미래의 나아갈 바를 제시하고자 한다.

- 문의: 단원어린이도서관 ☎ 031-481-2679, 본오도서관 ☎ 031-481-3697, 중앙도서관 ☎ 031-481-3866 (홈페이지: <http://lib.iansan.net>)

신선영 명예기자 (woghkah@hanmail.net)

# 전통문화체험과 예절 교육 받으며 겨울방학을 알차게

## 안산행복예절관, '겨울방학예절학당' 열어



'겨울방학예절학당'이 지난 1월 6일부터 9일까지 안산행복예절관에서 열렸다. 이번 학당은 6일 오전 9시 30분 입소식을 시작으로 9일 사자소학을 끝으로 수료식을 가졌다.

겨울방학예절학당은 조상들의 지혜, 배려와 섬김의 효문화를 익히고 전통문화체험과 예절교육을 통하여 밝고 건강한 어린이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프로그램을 준비했다.

안산시 초등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열린 이번 겨울방학예절학당은 40명이 참가해 4일 동안 각 다른 프로그램으로 진행됐다.

방학을 활용하여 학교에서 접하기 어려웠던 다도체험, 우리복식, 전통놀이, 사자소학, 전통문화체험 등을 통해 몸으로 익히고 실천하는 방법을 익혔다. 때와 장소, 상황에 맞는 행동예절과 상대방을 배려하는 바른 인성을 기르게 하고, 사자소학을 통하여 효의 실천 방법을 익히고 부모님께 감사의 표현을 할 수 있도록 다양한 경험을 체험했다.

다도 시간에는 참가 학생 모두 한복으로 갈아입고 다도 체험을 했다. 민화로 에코백 꾸미기 시간에는 두 팔을 걸어 붙이고 민화의 색을 표현하기 위해 열심히 활동했다.

이번 예절학당에 참가한 이소현 학생(신길초 5)은 "다도

시간에 처음에는 무릎이 아팠지만 재밌었어요. 차 맛은 처음에는 썼지만 두 번째 마실 때는 단 느낌이 났어요. 다식은 집에서 자주 먹던 맛이 아니지만 맛있었고, 불편하지만 한복을 입으니 새롭고 예뻐요"라고 말했다.

또, "지난 여름방학학당 때에도 참가해 재밌고 즐거워 다시 이번 겨울방학 때에도 참가하게 되었습니다. 6학이 되어서도 방학학당에 참가하고 싶어요"라고 했다.

• 문의: 안산행복예절관 ☎ 031-475-0323

이선희 명예기자 (iamyou70@hanmail.net)

# 추운 겨울, 경기도미술관 '어린이 꿈★들'에서 놀자

## '상상더하기+' 전시연계 다양한 프로그램



이정윤 - 날으는 꼬끼리

경기도미술관에서는 현대미술을 어린이들의 상상력과 접목시킨 어린이 전용 상설 예술체험공간 '어린이 꿈★들'의 '상상더하기+' 전시를 볼 수 있다.

'상상더하기+' 전시는 어린이들의 상상력과 창의력을 더해줄 수 있는 작품으로 구성되었다.

전시는 기존의 어린이미술관의 기능인 현대 미술 작품의 감상과 교육·체험에 경기도미술관만이 가질 수 있는 특화된 프로그램을 더해 어린이들이 다양한 경험을 체험하도록 배치되어 있다.

전시공간은 어린이의 눈높이에 맞는 50여 점의 현대미술 작품으로 구성되며, 주제는 작품 성격에 따라 몸놀이, 상상놀이, 표현놀이로 구분된다. 몸놀이에는 작품과의 즉각적 체험을 통해 어린이들의 신체영역을 발달시키기 위한 신체놀이, 공간놀이, 언어놀이 등의 작품이 전시된다. 상상놀이는 작품을 관찰하면서 어린이들의 감성영역을 발달시켜 창의력과 상상력을 불러일으키게 하며, 작가의 상상력을 통해 생각의 깊이를 키워주는 작품으로 구성됐다. 표현놀이는 어린이들이 작품 속 다양한 재료를 찾아보고 표현기법을 알아보면서, 작품을 이해하고 표현하는 능력을 키울 수 있게 해준다.

이연숙 작가의 '다시 사용해 주세요-바닷속이야기'와 김미인·서정국의 '별별이야기'는 전시물로 물고기 뱃속이나 우주공간에 들어와 있는 것 같은 체험을 할 수 있게 해주고, 이정윤의 '날으는 꼬끼리'는 궁금증을 유발하며 어린이들이 작품 속에 숨은 이야기를 만들어 보게 한다.

'어린이 꿈★들'은 방학동안 전시와 연계된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도 운영한다.

'아빠와 함께 꼬물꼬물'은 이용배 작가의 '공동체' 작품을 감상한 후, 작품의 조형적 의미와 재료를 탐구하고, 아이와 아빠가 함께 작품을 만들어보는 프로그램이다. 3월까지 매주 토요일, 오전 11시와 오후 2시에 진행되며, 6세 이상 어린이와 아빠라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재료비는 가족당 7천 원이다.



이연숙 - 다시 사용해주세요-바닷속이야기

'바스락 달그락 미술정원'은 이연숙 작가의 '다시 사용해 주세요' 작품과 연계된 예술체험으로 작품 소재인 비닐을 사용해 새로운 조형물을 만들어보고 작가의 작품을 함께 꾸며보는 참여미술 프로그램이다. 재료비는 개인당 3천 원이고, 2월 말까지 매주 토요일 일일 3회, 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하루 2회 수업이 진행된다.

'꼬끼리의 끝없는 여행'은 이정윤 작가의 '날으는 꼬끼리' 작품과 연계된 예술체험으로 꼬끼리를 주제로 수건을 활용하여 꼬끼리 인형을 만들어보는 프로그램이다. 재료비는 개인당 4천 원이고, 2월 2일까지 매주 화요일과 목요일 하루 2회, 매주 일요일 하루 3회 진행된다. 모든 교육체험 프로그램은 경기도미술관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접수가 가능하다.

• 문의: 경기도미술관 홈페이지(www.gmoma.or.kr)

송보림 명예기자 (treehelper@naver.com)

# 안산시 출산장려 프로그램 ‘다양’

학자금 지원, 전기요금 감면, 공공시설료 할인 등 셋째아 이상 가정은 더 큰 혜택 있어

안산시는 저출산 시대를 맞아 출산을 장려하고 셋째아 이상 18세 이하 가정에 대해 다양한 지원을 하고 있다. 출산장려 지원 주요시책은 크게 다자녀 가정지원, 자녀성장 맞춤지원, 임신과 출산 지원으로 나뉜다.

다자녀 가정 지원은 출산장려금, 학자금 지원, 자녀 교복비, 영유아 양육비 지원, 상수도요금 감면, 도시가스요금 감면, 전기요금 감면, 자동차 취득세 감면, 공공시설 감면이다.

자녀성장 맞춤 지원은 아이돌봄 지원, 보육료, 양육수당, 유아학비이고, 임신과 출산 지원은 장애인 출산 지원

금, 임신부 등록 및 건강관리, 산모도우미 지원, 인공수정 시술비 지원이다. 보육료와 양육수당, 유아학비는 만 0~5세 자녀가 어린이집에 다닐 경우 자녀수와 가계 소득과 무관하게 지원이 된다. 장애인 출산지원금도 장애 자녀수와 관계없이 지원된다.

또한 셋째아 이상 18세 이하 가정에는 행복플러스 카드를 발급해 다양한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 안산시 내 공영주차장과 수영장(삼익아파트/올림픽수영장), 체육시설(테니스장/체력단련장), 어촌민속박물관, 누에섬등대전망대, 동주민센터 프로그램(관할 거주지에서만 이용 가능), 여

성비전센터 프로그램(여성에 한함), 안산여성인력개발센터(여성에 한함)는 전액 및 일부감면을 받고, 안산문화예술회관과 여성근로자복지센터를 이용할 시는 일부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해당여부와 지원에 관한 자세한 문의는 안산시 콜센터(1644-1234)로 하거나 주소지 동 주민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김은미 명예기자 (iami34@hanmail.net)

• 안산시 출산장려 지원 주요 시책				
구분	지원사업	대상기준	지원내용	신청기관
다자녀 가정지원	출산장려금	안산시에 부 또는 모와 함께 거주하고 있는 다자녀 가정의 셋째 이상 출생아	• 셋째아 이상 1인당 100만원 지급	주소지 동주민센터
	학자금 지원	안산시에 부 또는 모와 함께 계속 5년 이상 거주하고 있는 다자녀 가정의 자녀	• 넷째아 이상 고등학교 학비 전액(12회) • 다섯째아 이상 대학교 학비 지급(8회) ※ 대학생의 경우 1세대당 1인에 한함.	주소지 동주민센터
	자녀교복비	안산시에 부 또는 모와 함께 계속 3년 이상 거주하고 있는 다자녀 가정의 셋째 이상 자녀(신입생에 한함)	• 셋째아 이상 중학교 및 고등학교 신입생의 교복비:30만원 지원(1회)	주소지 동주민센터
	영유아 양육비 지원	안산시에 부 또는 모와 함께 계속 1년 이상 거주하고 있는 셋째 이상 자녀	• 만0~만5세까지 월 3만원씩 지원	주소지 동주민센터
	상수도요금감면	3자녀 이상(셋째아 기준 만19세까지)가정	• 1단계요금적용 (누진미적용)	주소지 동주민센터
	도시가스요금감면	3자녀 이상 가정	• 동절기(12월~3월) 난방용 6,000원 • 동절기외 1,650원 취사용 420원	주소지 동주민센터 삼천리도시가스 ☎ 8043-6398
	전기요금감면	3자녀 이상 가정	• 20%할인 (월12,000원 한도)	주소지 동주민센터 한국전력공사 ☎ 123
	자동차 취득세 감면	18세 미만 3자녀 이상 자녀를 양육하는 부모	• 자동차 1대 취득세 감면	차량등록사업소
	공공시설감면	3자녀 이상 가정(18세 이하)	• 공영주차장, 수영장 등 감면 (행복플러스카드 소지자)	주소지 동주민센터
자녀성장 맞춤지원	아이돌봄지원	소득수준에 따라 정부지원과 본인부담금 차등 적용	• 시간제돌봄서비스 : 생후3개월~만12세 • 영아종일제돌봄서비스 : 생후3~24개월	안산시건강가정지원센터 ☎ 501-0033 / 1577-2514
	보육료	자녀수, 소득과 무관	• 만0~5세 어린이집에 다닐 경우	주소지 동주민센터 복지로, 아이사랑, 보육포털
	양육수당	자녀수, 소득과 무관	• 만0~5세 집에서 돌보는 경우	주소지 동주민센터, 복지로
	유아학비	자녀수, 소득과 무관	• 만3~5세 유치원에 다닐 경우	주소지 동주민센터, 복지로
임신 출산지원	장애인 출산지원금	자녀수 관계없음	• 장애 1-3급 : 100만원 이내 • 장애 4-6급 : 70만원 이내 • 국가유공자 중 상이등급 1~7급 : 70만원 이내	주소지 동주민센터
	임산부 등록 및 건강관리	안산시 임산부 건강보험 가입자 및 피부양자 중 임산부	• 임산부 특강 및 철분제 지원 등 • 임신,출산진료비 지원 (고운맘체크/신용카드 1인당 50만원)	상록수보건소, 단원보건소 국민,신한,우체국,국민건강보험공단
	산모도우미지원	전국가구 평균 50%이하	• 출산가정 산모도우미 지원	상록수보건소(2563) 단원보건소(5975)
	인공수정 시술비지원	도시근로자 평균소득의 180% 이하	• 불임부부 시험관 경비지원	상록수보건소(2563) 단원보건소(5975)

## 환자가 주인인 내 병원 만들기 프로젝트

### 안산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 제2진료소 문 연다



최근 의료서비스에 대한 불신이 높아지면서 일반 영리 병원과 다른 운영방식을 가진 의료협동조합에 대한 관심이 더욱 높아지고 있다. ‘환자권리장전’ 등을 통해 환자 보호에 최우선의 관심을 쏟는 협동조합병원에서는 ‘환자가 주인’이라는 말이 단순한 수사(修辭)가 아니라 실질적인 원리로 운

영되며, 그 덕분에 환자들은 과잉 진료에 대한 불안 없이 치료를 받고, 의사는 병원 운영에 대한 고민 없이 진료에만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진다.

안산에는 2000년에 우리나라 3호로 설립된 안산의료생협이 현재 ‘안산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이하 안산의료사회협)’으로 운영되고 있다. 안산의료사회협은 소비자가 직접 설립과 경영에 참여할 수 있는 의료기관으로 2013년도에 전국 최초로 주민참여형 사회적협동조합으로 공인을 받았다.

의료협동조합은 치료가 아닌 예방을 중심으로 의원을 운영하고 있다. 적절하고 충분한 진료상담, 항생제 처방을 낮추기, 약이나 주사보다 생활습관에 대한 조언, 주치의사업, 조합원들의 여러 가지 건강 소모임, 거리건강체코 등은 의료협동조합의 사회적 역할을 단적으로 보여준다.

1개 병원으로 시작해서 15년간 월피동 사업소를 중심으로 한의원, 요양원, 건강검진센터, 가정간호사업소, 치과 등으로 확대됐다. 조합원 수가 약 500명에 이르는 높은 관심 속에 매년 다양한 사업들이 조합원들의 활발한 이용과 활동들로 이어져 왔고 2014년도에 제2진료소 설립 추진위

원회를 조직하게 된 원동력이 됐다.

제2진료소 설립위치는 본오동 샘골로로, 진료과목은 가정의학과로 결정됐으며 이름짓기 공모를 통해 ‘새안산상록의원’으로 명칭을 정했다. 현재 상록구 본오동 870번지 2층과 3층에 진료소 인테리어를 마친 제2진료소는 개원준비를 한 후 오는 3월중 개원할 예정이다.

안산의료사회협 관계자는 “이것이 단순히 하나의 병원을 더 세우는 일에 그치지 않고, 우리가 꿈꾸는 모두의 나은 삶을 현실로 펼치기 위한 더 큰 발걸음을 내딛는 기점이 되길 바란다”며 “안산의료사회협이 장기적으로 안산에 있는 다양한 협동조합이나 사회적경제 조직들과 3~4개 동이나 구 정도의 지역 안에서 연대를 이루어,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포괄적인 사회 안전망 서비스를 제공할수 있는 도시를 만들고 싶다”고 말했다.

- 안산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 홈페이지 : [www.asmedcoop.org](http://www.asmedcoop.org)
- 문 의 : 안산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 ☎ 031-401-2208

송보림 명예기자 (treehelper@naver.com)

# 퇴근 후, 주말과 공휴일, 언제나 두드리세요

## ‘희망두드림 복지상담실’ 개소 1주년 맞아



2014년 1월에 개소한 연중무휴 ‘희망두드림 복지상담실’이 1주년을 맞았다.

희망두드림 복지상담실은 1년 동안 각종 사회복지서비스상담, 사회복지서비스신청, 증명서발급, 저소득계층 법률상담과 타기관 연계서비스 순으로 총 4,700여 건을 상담했다.

지난해 12월, 희망두드림 복지상담실의 전반적인 서비스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 이용만족도가 82%(만족, 매우만족)로 나타났다. 이용만족도가 높은 이유로는 △휴일 야간 근무와 주말과 공휴일에도 상담이 가능한 점 △행복드림 민원실에서 출생신고 등 민원업무를 처리하고 바로 양육수당 신청 등 민원연계가 가능한 점 △일자리와 서민금융 등 타기관의 정보 연계 등을 장점으로 들었다.

희망두드림 복지상담실 방문 경로에 대하여 ‘행복드림 민원실 방문 후와 ‘지인 소개’ 순으로 조사되어 앞으로도 지속적인 홍보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시는 2015년에도 복지업무의 종류가 많고 타 기관 서비스에 대한 연계 정보도 필요한 만큼 업무 연찬에 힘쓰고, 이용자의 의견에 따라 지속적으로 홍보해 시민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희망두드림 복지상담실은 안산시청 행복드림 민원실 내에 자리하고 있으며,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10시, 주말과 공휴일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운영한다.

• 문의: 안산시 복지정책과 ☎ 031-481-2713  
신선영 명예기자 (woghkah@hanmail.net)

# 상록수역 시민사랑방 ‘서민금융종합지원센터’

## 정확한 금융서비스로 더 넓은 금융혜택

안산시 대부북동에서 작은 가게를 운영하는 J씨. 대부분 업체에서 20%가 넘는 금리로 가게운영자금 대출을 받았다. 대출을 받을 당시만 해도 그럭저럭 가게를 꾸려나가면서 이자를 낼 수 있었지만, 경제 불황으로 가게운영이 예년만 같지 못하게 된 지금은 원금의 20%가 넘는 이자를 감당하기가 어려워 건설현장 일도 병행할 수밖에 없게 되었다. J씨는 가게운영자금으로 빌린 연이율 20%가 넘는 채무부담이 커서 고민하던 중 지난 8월 상록수역 시민사랑방에 개설된 서민금융종합지원센터에 고금리 대출을 저금리로 전환해주는 ‘바꿔드림 론’이 있다는 소식을 듣고,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사랑방을 찾았다. J씨는 조건이 맞지 않아 전환대출 바꿔드림 론은 받을 수 없었지만 사업자에게 대출 가능한 ‘미소금융’을 이용해 연이율 4.5%, 담보·연대보증 없이 원리금 균등분할상환 조건으로 1천만 원을 대출받아 기존의 대부분에서 빌린 돈을 갚을 수 있었다.

안산시는 서민금융지원 활성화 일환으로 지난 2013년 4월 마련했던 ‘국민행복기금 상담·접수 창구’를 2014년 8월 ‘서민금융종합지원센터’로 확대 개설해, 과도한 채무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민에게 도움이 손길을 펼치고 있다.

서민금융지원센터 운영에는 한국자산관리공사, 신용회

복위원회, 경기신용보증재단, 미소금융재단이 참여한다. 한국자산관리공사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바꿔드림 론과 소액대출 상담을 하고, 대학생 학자금 전환대출과 신용회복 관련 개인회생 업무를 신용회복위원회에서 담당한다. 경기신용보증재단은 대출을 받기 원하는 소상공인들의 보증업무를 원 스톱으로 진행해 대출을 받기 위해 여러 기관을 방문해야하는 소상공인들의 불편을 덜어주고 있다. 미소금융재단은 창업자금과 운영에 필요한 자금지원 업무를 통해 영세한 자영업자의 자립을 돕는다.

서민금융종합지원센터는 지난 8월 문을 연 이래 11월 한 달 동안 474건(전화상담 252건, 방문상담 223건)의 상담을 포함 총 1,648건(전화상담 862건, 방문상담 786건)의 상담을 진행했다. 2013년 4월부터 국민행복기금 창구 상담건수를 합하면 2014년 11월 기준으로 1만3128건의 상담과 1,058건의 처리실적이 있다.

안산시 관계자는 “서민금융지원센터가 금융혜택을 제대로 누리지 못하는 분들께 보다 넓은 금융서비스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 문의: 서민금융종합지원센터 ☎ 031-481-3750, 3754  
서민금융 행복기금 다모아콜센터 1397  
백미란 명예기자(whity0218@naver.com)

## 2015년 달라지는 제도 II

### 저소득층 위한 연 2% ‘월세대출’ 출시 병사 봉급 15% 인상 확정일자 온라인 부여 서비스 개시 등

△ 매매가 6억~9억 원 부동산 중개보수율 인하=1분기(1~3월) 중 매매가 6억~9억 원 미만과 전월세 3억~6억 원 미만 주택 거래 시 부동산 중개보수율이 낮아진다. 매매는 현행 0.9% 이하에서 0.5% 이하로, 전·월세는 현행 0.8% 이하에서 0.4% 이하로 인하된다.

△ 저소득층 위한 연 2% ‘월세대출’ 출시=1월부터 취업준비생과 자활의지가 있는 저소득층(희망기움통장 가입자, 근로장려금 수급자)에게 ‘주거안정 월세대출’을 시행한다. 매달 30만 원씩 2년간 대출해 준다. 또 6월부터 중위소득의 43%(올해는 4인 가구 기준 월 173만 원) 이하 전·월세를 사는 가구는 매달 평균 11만 원의 주거급여를 받게 된다.

△ 원산지 거짓표시 재벌자 과징금 제도 도입=6월부터 원산지를 2년간 2번 이상 거짓으로 표시하면 위반 금액의 5배 이하의 금액을 과징금으로 부과한다.

△ 병사 봉급 인상=1월부터 병사 봉급이 전년 대비 15% 인상된다. 이병은 11만2,500원에서 12만9,400원, 병장은 14만9,000원에서 17만1,400원으로 각각 월급이 인상된다.

△ 예비군 훈련 지연입소자 허용 폐지=3월부터 예비군 훈련 입소시간이 오전 9시까지로 제한된다. 오전 9시 이후부터 9시 30분까지 도착한 예비군을 대상으로 한 입소 허용 및 보충훈련 실시제도는 폐지된다.

△ 재외국민 대상 주민등록증 발급=재외국민도 주민등록증을 발급받을 수 있게 된다. 앞으로 영주권을 받고 국외로 이주해도 재외국민으로 주민등록이 유지되고 이미 말소됐더라도 재등록할 수 있다.

△ 확정일자 온라인 부여 서비스 개시=7월부터 주택 임대차계약서 종이 문서를 스캔해 제출하면 온라인으로 확정일자를 부여한다.

△ 문화예술치유 프로그램 지원=상반기 중 재난사고, 학교 및 가정폭력 피해자를 위해 미술 음악 등 문화를 통한 예술치유 프로그램 지원을 시행한다. 전문 예술치료사가 일대일 또는 소규모(10명 내외)로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 이동통신사 발신번호 조작 방지 조치 의무화=4월부터 보이스피싱, 스미싱 등 전기통신금융사기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통신사들은 이용자가 발신번호를 임의로 변경할 수 없도록 조치한다. 국제전화 연결 시 안내서비스가 의무화된다.

△ 면세 한도 초과 여행자 자진신고 세금감면=해외에서 면세 한도인 600달러가 넘게 쇼핑한 여행자가 세관에 자진신고하면 15만 원 한도 내에서 내야 할 세금의 30%를 감면받게 된다.

△ 금융권 ‘두넛콜’ 공식 가동=1월부터 단 한 번의 신청으로 모든 금융회사의 영업목적 전화와 문자를 한꺼번에 수신 거부할 수 있는 금융권 연락중지청구전화(두넛콜·Do-not-call)가 정식 운영된다. 홈페이지(www.donotcall.or.kr)에서 연락 중지를 신청할 수 있다.

이선희 명예기자 (iamyou70@hanmail.net)



시행했을 경우 사업비를 반환해주는 제도를 말한다. 한국 수자원공사 시화지역본부는 반환사업을 통해 금개구리의 안정적인 서식환경 제공을 위한 비상 수원을 확보하고 생태습지를 확대 조성함으로써 금개구리 개체군이 없어지는 것을 예방하고 도심 속 생물종 다양성 증진을 위해 추진해 왔다.

금개구리 서식지 주변에는 관찰 데크와 어린이 숲 체험 놀이터, 다양한 종류의 개구리 모형 및 안내판을 갖춘 생태 교육장을 조성하였으며 오는 3월쯤 일반인에게 개방할 계획이다.

시화지역본부 관계자는 “금개구리 서식처가 안산시의 또 다른 생태 명소로 거듭나고, 봄이 되면 많은 시민들이 도심 속에서 금개구리의 울음소리를 들을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금개구리는 우리나라의 고유종이자 천연기념물, 그리고 멸종 위기 야생 동식물 2급으로 지정된 동물이다. 몸의 크기나 전체적인 모양이 참개구리와 비슷하나, 등 옆선을 이루는 두 줄의 융기가 금색으로 현저하게 돌출되어 있어 구별된다. 한국 고유종으로 우리나라 전역에 분포했었지만 서식지 파괴와 농약 살포로 피해를 가장 많이 입은 종이다. 2012년 5월에 멸종위기동물로 지정되었다.

김은미 명예기자 (iami34@hanmail.net)

## 봄이면 금개구리 만날 수 있어요

### 멸종위기 금개구리 서식지, 생태교육장으로 3월 개방

단원구 고잔동 수인선 폐 철도변 일대(면적 1만1000㎡)는 예전에 하천과 논 습지가 조성되어 있던 곳이다. 그곳에 금개구리가 서식했지만 고잔 신도시 개발 등으로 도시화 됨에 따라 금개구리가 서식할 수 있는 환경이 파괴되면서 그 모습을 찾아보기 힘들어졌다.

한국수자원공사 시화지역본부는 환경부 생태계보전협력금 반환사업의 일환으로 지난해 5월부터 12월까지 사업비 5억5천만 원을 들여 금개구리 서식지 복원사업을 추진한 결과 지난 1월 6일 서식지를 복원했다.

생태계보전협력금 반환사업은 자연환경을 보전하고 자연 자산을 관리하고 활용하기 위해 자연환경 또는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이 많거나 생물 다양성의 감소를 초래하는 사업을 하는 사업자에게 부과했다가 생태계 복원사업을



## 천혜의 관광자원 대부도를 안산의 보물섬으로

### ‘대부해양관광본부’신설, 업무 시작

안산시는 천혜의 관광자원을 가지고 있는 대부도를 안산의 보물섬으로 발전시키기 위한 첫 발을 내디뎠다. 지난 1월 1일 대부해양관광본부(대부북동 삼거리에서 대부도 주민센터 방향 200m 지점)를 새롭게 열어 그 안에 대부개발과, 관광과, 해양수산과를 편제하고 그동안 대부동 주민센터에서 처리하던 건축 인·허가, 개발행위허가, 대부도 산업과 주민들의 생활민원 업무를 포함한 대부도 종합발전을 향한 행정을 펼친다.

안산시 관계자는 “대부도의 자연은 안산을 먹여 살릴 미래 성장 동력”이라며 “대부도의 정주여건을 개선하고 교육·관광·문화 인프라를 확충해 15년 후에는 대부도를 인구 5만 명 이상의 도시로 키워, 국제적인 관광지로 발돋움 시킬 계획”이라고 밝혔다.

대부해양관광본부 대부개발과는 위의 계획을 구체화해서 ‘대부도 보물섬 프로젝트’를 추진한다. 수도권에 위치해 있으면서 천혜의 관광자원을 갖고 있는 대부도의 매력을 살려 가공하지 않은 자연 그대로의 모습을 관광 상품으로 개발하는 것이다.

안산시는 이를 위해 문화와 관광을 체험하고 휴양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 주민이 살기 좋은 곳으로 대부도를 만드는 데 중점을 두고 역량을 모을 계획이다.

대부도 주민들의 정주여건이 향상되도록 대중교통 체

계를 구축해 교통편의를 돕고, 교육환경을 개선해 자녀교육에 안심하고 생업에 종사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든다. 나아가 문화와 관광을 함께 체험할 수 있는 네트워크를 마련해 박물관·미술관 등과 어촌체험마을, 대부해솔길 등을 함께 돌아볼 수 있도록 연계 프로그램을 만든다.

대부해양관광본부 관광과는 ‘다시 가고 싶은 대부도’를 만들기 위해 관광정책 종합개발 계획을 수립하고 관광축제 개발과 운영 등 관광마케팅을 담당한다.

해양수산과는 세계 5대 갯벌 중 하나인 대부도 갯벌을 포함한 서해안 갯벌 관리와 수산자원 조성, 해양레저와 해양관광 개발에 나서게 된다.

안산시 관계자는 “안산시민이 힘을 합쳐 하나씩 실행해 나간다면 안산은 15년 후 세계적으로 경쟁력 있는 도시로 변모해 있을 걸로 확신한다”며 “함께 힘을 모으고 노력해 나아가자”고 말했다.

백미란 명예기자 (whity0218@naver.com)



대부도 유리섬박물관

## 체험도 하고, 숙제도 하고 방학과 함께 하는 문화체험

### 최용신기념관

농촌계몽운동에 일생을 바친 독립운동가 최용신



- 운영시간 : 09:00~18:00(입장은 17:30까지)  
매주 월요일, 매년 설, 추석 휴무
- 주 소 : 안산시 상록구 샘골서길 64
- 전화번호 : 031-481-3040
- 홈페이지 : <http://choiyongsin.iansan.net>
- 교통안내 : 4호선 상록수역 1번 출구에서 도보 5분. 버스 52, 101, 11(수원), 33, 66, 71, 71-2, 76, 99-1, 125, 511, 301, 22, 55, 99, 110, 707, 909번 이용.

### 단원미술관

단원 김홍도의 예술혼을 느낄 수 있는 미술관



- 주 소 : 안산시 상록구 충장로 422
- 전화번호 : 031-481-0503~4
- 홈페이지 : [www.idanwon.org](http://www.idanwon.org)
- 교통안내 : 노적봉폭포 바로 옆에 위치, 노적봉폭포 주차장 또는 성포동 홈플러스 4층 주차 후 미술관 연결통로 이용. 4호선 한대앞역에서 31, 33, 52번 버스를 이용하여 성포동 홈플러스 앞에서 하차 도보 5분.

### 안산식물원

사계절 내내 만날 수 있는 다양한 식물의 세계



- 운영시간 : 동절기 10:00~17:00  
하절기 07:00~18:00, 연중무휴
- 주 소 : 안산시 상록구 성호로 113
- 전화번호 : 031-481-3168
- 홈페이지 : <http://plant.iansan.net>
- 교통안내 : 버스 71, 71-2, 76, 99-1, 125, 301번 이용.

### 성호기념관

조선 후기 실학자이자 나라의 큰 스승 성호이의



- 운영시간 : 09:00~19:00(입장은 17:30까지)  
※ 동절기(11~2월) 09:00~18:00
- 주 소 : 안산시 상록구 성호로 131(성호공원 내)
- 전화번호 : 031-481-2574
- 홈페이지 : <http://seongho.iansan.net>
- 교통안내 : 노적봉공원, 성호공원 옆에 위치. 4호선 상록수역, 한대역에서 도보 10분 소요. 버스 11, 11-2, 71, 76, 99-1, 125, 301번 이용.

### 안산문화예술의전당

다양한 문화예술 공연·전시가 가득한 공간



- 주 소 : 안산시 단원구 화랑로 312
- 전화번호 : 031-481-4000
- 홈페이지 : [www.ansanart.com](http://www.ansanart.com)
- 교통안내 : 안산 초지역 사거리에서 우회전하여 화정1교 사거리에서 다시 한번 우회전. 4호선 고잔역 1번 출구에서 도보 5분. 버스 6, 11, 22, 30, 30-2, 30-7, 52, 66, 99, 350, 707, 909번 이용.

### 다문화음식거리

외국인들에게 '고향의 맛', 우리에게 '이색적인 맛'



- 주 소 : 안산시 단원구 다문화길 16 일원
- 전화번호 : 031-481-2232
- 교통안내 : 4호선 안산역 1번 출구에서 다문화음식거리 표지판이 있는 골목으로 진입. 버스 1, 1-1, 11, 2-1, 20-1, 21, 22, 23, 30, 30-2, 30-7, 33, 66, 99, 101, 123, 350, 707, 909, 5601번 이용.

### 시화호조력발전소 (T-Light공원·휴게소)

에너지발전과 시민의 휴식을 함께



- 주 소 : 안산시 단원구 대부동 2098(시화방조제 일원)
- 전화번호 : 032-890-6520
- 홈페이지 : <http://tlight.kwater.or.kr>
- 교통안내 : 시화방조제 중간에 위치. 버스 123번 이용하여 시화호조력발전소에서 하차.

### 안산문화원 & 향토사박물관

안산의 역사를 한 눈에 볼 수 있는 문화박물관



- 운영시간 : 10:00~17:00(설·추석연휴 휴관)
- 주 소 : 안산시 상록구 석호로 144
- 전화번호 : 031-415-0041~2
- 홈페이지 : [www.ansanculture.or.kr](http://www.ansanculture.or.kr)
- 교통안내 : 상록구청에서 약 300m. 4호선 한대앞역에서 도보 15분 또는 4번 마을버스를 이용하여 석호초등학교에서 하차. 버스 11-1, 22, 55, 62, 71, 71-1, 76, 98, 99, 707, 909번 이용.

### 대부도유리섬

한국의 무라노를 꿈꾸는 아름다운 유리작품 세계



- 운영시간 : 화·일요일 09:00~19:00(하절기 4~10월), 09:30~18:30(동절기 11~3월), 월요일 휴무
- 주 소 : 안산시 단원구 부흥로 254
- 전화번호 : 032-885-6262
- 홈페이지 : [www.glassisland.co.kr](http://www.glassisland.co.kr)
- 교통안내 : 시화방조제에서 영흥도 방향으로 가다 말부흥 방향으로 이동. 베르아텔승마클럽 근처에 위치. 123, 790번 버스를 이용하여 대부동주민센터 하차 후 4km 이동

### 기타 문화체험시설



**정문규미술관** | 전시와 연주회를 함께 즐길 수 있는 대부도 대표 미술관

- 운영시간 : 11:00~19:00 / 주 소 : 안산시 단원구 대부항금로 153-9 / 전화번호 : 032-881-2753 / 홈페이지 : [www.chungmuseum.org](http://www.chungmuseum.org)

**안산어촌민속박물관** | 서해안 갯벌과 어촌의 역사를 한눈에

- 운영시간 : 09:00~18:00(월요일 휴관) / 주 소 : 안산시 단원구 대부항금로 7 / 전화번호 : 032-886-0126 / 홈페이지 : [www.ansancs.net](http://www.ansancs.net)

**누에섬등대전망대** | 하루 두 차례 갯벌이 드러나는 작은 무인도

- 운영시간 : 하절기(3~10월) 09:00~18:00 동절기(11~2월) 09:00~17:00, 월요일 휴관 / 주 소 : 안산시 단원구 대부항금로 17-156 / 전화번호 : 032-886-0126

**경기창작센터** | 신예 예술가를 위한 복합공간

- 운영시간 : 10:00~18:00, 월요일·공휴일 휴무 / 주 소 : 안산시 단원구 선감동 400-3 / 전화번호 : 032-890-4820 / 홈페이지 : [www.gyeonggicreationcenter.org](http://www.gyeonggicreationcenter.org)

**경기도청소년수련원 (도자기체험관)** | 여행의 추억을 담은 도자기를 내 손으로

- 운영시간 : 10:00~18:00, 월요일·공휴일 휴무 / 주 소 : 안산시 단원구 선감동 680-5 / 전화번호 : 032-325-6699 / 홈페이지 : [www.sjdoe.com](http://www.sjdoe.com)

## 안산이 낳은 프로야구 김광현 선수와의 일문일답

지난해 뜻하지 않은 참사로 인해 안산시민은 크나큰 아픔을 겪었다. 참담했던 2014년을 보내고 2015년을 맞는 안산 시민에게 힘을 내시라고 격려차원에서 안산출신 김광현 프로야구 선수와의 인터뷰를 기획하게 되었다.

세월호 참사 때 “안산은 나를 키워준 나의 고향”이라며, 함께 슬퍼하고 세월호 유가족을 위해 써달라며 소정의 금액을 기부하기도 했던 김광현 선수는 최근 미국 프로야구 메이저리그 진출을 유예하며 훗날을 기약하고, 국내 프로야구 팀 SK 와이번즈와 재계약을 했다. 아름다운 신부와 결혼식을 올리고 가정을 꾸리면서 제2의 전성기를 펼칠 준비에 들어갔다.



### 아름다운 신부와 가정을 꾸리고 제2의 전성기 펼칠 준비

**Q** 덕성초등학교-안산중앙중학교-안산공업고등학교를 졸업하며 야구를 계속해 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광현 선수에게 야구는 무엇입니까?

**A** 야구선수로서 야구를 단순히 직업으로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평생 해온 것이고 앞으로도 저의 모든 것을 다 바쳐서 평생 동안 해나가야 하는 제 인생의 전부입니다.

**Q** ‘야구는 9회 말부터’ 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A** 모든 스포츠가 다 똑같다고 생각합니다. 모든 선수들이 마지막까지 긴장을 늦추지 않고, 경기가 끝날 때까지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Q** 안산에는 김광현 선수를 롤 모델로 삼아 야구를 시작하는 꿈나무들이 많이 있습니다. 어린 꿈나무에게 김광현 선수처럼 훌륭한 선수가 되기 위한 팁을 주신다면?

**A** 일단 야구를 억지로 해서 안 되고 재미있어야 합니다. 야구를 할 때 던지는 것, 치는 것, 뛰는 것 말고, 그 외적인 부분에서도 재미를 찾을 수 있어야 합니다. 특히 야구 선수로서의 승부욕을 키우는 것도 좋겠습니다.

**Q** 남성에 비해 여성들은 야구를 잘 즐기지 못하는 것 같은데요. 새 신부는 야구를 잘 아는지? 여성들도 야구를 즐기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A** 저의 신부는 이제 야구를 알아가는 단계입니다. 앞으로 점차 더 많이 알게 될 겁니다. 야구 룰이 쉬운 게 아니기 때문에, 복잡한 룰을 외우려고 하기 보다는 야구장에 놀러 가서 분위기를 즐기다 보면 자연스럽게 룰도 이해하게 되고 즐길 수 있을 겁니다.

**Q** 5년 후, 10년 후 자화상을 말씀해 주세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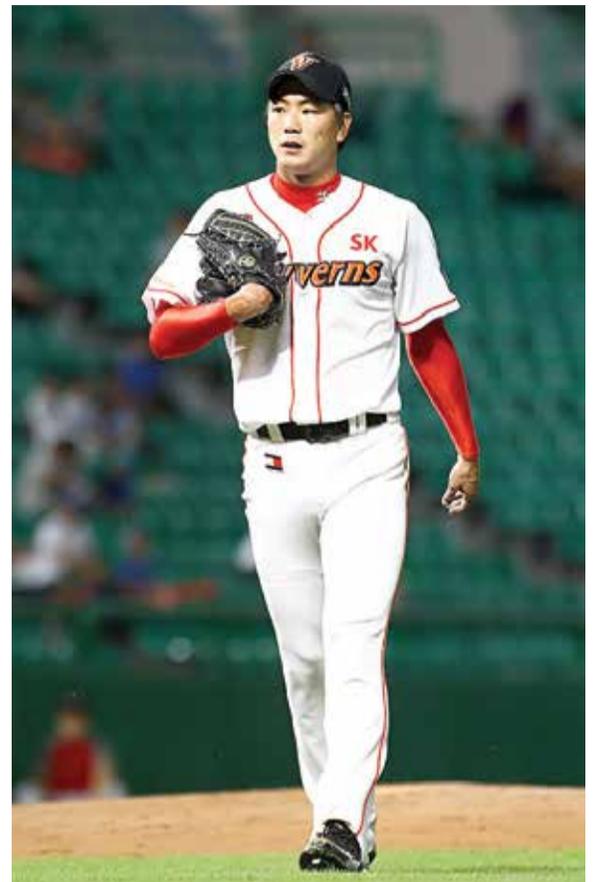
**A** 그 때에도 계속 야구를 하고 있을 겁니다. 베테랑 선수가 되어 있을 텐데요. 후배에게 존경받는 그런 선수가 되고 싶습니다.

**Q** 만약에 야구를 하지 않았다면 지금 어떤 일을 하고 있을까요?

**A** 야구를 하지 않았다면 평범한 회사원이 되었을 겁니다. 제 성격이 뛰는 것을 좋아하지도 않고, 연예인처럼 끼가 있는 것도 아니거든요.

**Q** 김광현 선수는 아버님과 꼭 닮았는데, 김광현 선수가 생각하는 부모님은 어떤 분이신가요? 그리고 부모님이 생각하는 김광현 선수는 어떤 아들인가요?

**A** 부모님은 지금의 제가 있기까지 최선을 다해서 저를 지지해주신 제 최고의 서포터입니다. 야구를 할 수 있도록



해주셨고, 야구를 하는데 있어서 정말 많이 도와주시고, 힘들 때마다 큰 의지가 되어주셨습니다. 제 개인적으로는 최대한 말쑥 안 부리고 덜 걱정시키는 아들이고 싶습니다.

**Q** 김광현 선수를 자랑스럽게 여기는 안산의 팬들에게 인사 부탁드립니다.

**A** 지난해 일어나서는 안 될 일이 안산에 일어났습니다.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기를 바랍니다. 경기장에 많이 찾아와 주시고 저를 응원해주시는 안산 팬 여러분 늘고 바랍니다. 여러분의 응원은 저에게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 줍니다. 더 열심히 뛰는 모습으로 보답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백미란 명예기자 (whity0218@naver.com)

## 바다물살 가르고 넓은 대양으로 간다

### 안산시 요트클럽 운동부, 부곡초와 안산중 22명의 선수 구성해 창단



부곡초등학교와 안산중학교 22명의 선수로 구성된 안산시 요트 클럽 운동부가 창단됐다.

안산시는 지난 12월 22일 와~스타디움 2층 기자실에서 선수와 학부모, 경기도와 안산시 요트협회 관계자를 비롯해 안산시체육회장, 안산시의회 문화복지위원장 등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창단식을 열었다.

요트클럽 운동부는 해양 스포츠가 가능한 안산시가 2013년부터 해양아카데미를 운영하면서 창단 조건들이 갖춰지면서 창단하게 됐다.

안산시는 요트클럽 운동부 창단을 통해 우수한 해양스

포츠 인재를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육성함으로써 각종 요트대회 출전 발판을 마련하고 해양관광도시 안산시를 널리 알릴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요트클럽 운동부 단장은 정용상 안산시체육회 상임부회장이 맡았다. 22명의 선수들은 감독의 지도를 받으며 안산을 대표하는 요트선수로 자라게 된다.

운동부 코치로 발탁된 이상훈 지도자는 “선수들의 기량향상을 통한 입상도 중요하지만 안전이 최우선이기 때문에 안전사고 발생 방지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안산시 관계자는 격려사를 통해 “상상 그 이상을 꿈꾸는 도시, 해양관광도시 안산에서 요트 클럽 운동부가 창단된 것을 축하하며 요트 꿈나무 육성과 해양발전을 위하여 다각도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안산시 요트클럽 운동부는 오는 2015년 4월에 열리는 ‘해군참모총장 배 당기요트대회’를 시작으로 5월 제주도에서 열리는 ‘제44회 전국소년체육대회’ 상위 입상을 바라며 실력을 쌓고 있다.

• 문의: 안산시 체육진흥과 ☎ 031-481-2149

백미란 명예기자 (whity0218@naver.com)

# 안산산업역사박물관 건립 위한 유물조사 마치고 내년 착공 예정



안산산업역사박물관 조감도

## 722개 기업 현장조사, 유물 2,583건 확인해

안산시는 지난 12월 24일 안산 산업의 역사를 재조명하고 미래 비전을 그리는 안산산업역사박물관 건립을 위해 유물조사를 마치고 최종보고회를 가졌다.

안산산업역사박물관은 화랑유원지 내에 전시실, 교육·체험실, 수장고, 사무실과 편의시설을 갖추고 지하 1층, 지상 2층, 연면적 4,500㎡의 규모로 건립될 예정이다.

산업역사박물관은 2012년 11월 박물관 건립 검토 보고를 시작으로 2016년 7월 착공, 2018년 3월 개관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다.

2014년 3월에 안산시 입주 기업을 대표하는 5개 단체와 유물 수집을 위한 협약을 맺고 5월부터 유물조사를 진행했으며, 6월에는 건립자문위원회를 구성하고 7월 지방재정투·융자심사 승인을 마친 상태다.

유물조사는 안산산업역사박물관 건립 목적에 적합한 유·무형 유물의 소재를 파악하고 건축·전시 방향을 구체화하기 위한 것으로 지난 5월 12일부터 한양대학교 산학협력단(책임연구원 배기동)이 진행했다.

용역팀은 안산스마트허브 입주 기업 중 안산산업의 특징을 보여줄 수 있는 8개 분야 722개 기업에 대한 현장 조사를 통해 2,583건의 유물을 확인했으며, 35명을 대상으로 구술

조사를 실시했다. 이날 보고회에서 용역팀은 기업에서 운영하고 있는 전시관을 활용해 위성박물관을 운영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이번에 조사된 유물 중 유물평가위원회 평가 결과 희소성, 역사성, 탁월성이 높은 산업 유물은 반월신공업도시 설계보고서, 대한민국 1호 PC인 삼보컴퓨터 SE-8001, 두산 동아의 60~70년대 인쇄기계 등 총 2,181건이다.

한양대학교 김태호 교수는 “조사된 유물들이 연구의 측면에서 대단히 흥미롭고 이미 충분한 내러티브를 가지고 있어 전시 활용도가 높다”고 했으며, 대한민국역사박물관 김시덕 과장은 “이번 용역을 통해 유물 수집에 대한 분류와 전략이 세워졌다”고 말했다.

한국이민사박물관 김상열 관장은 “유물 수집을 위해서는 인력과 함께 유물을 보관할 공간도 필요하다”며 유물보관소 건립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위성박물관 운영은 기업과 박물관이 상생할 수 있는 좋은 방안으로 산업단지 관광 루트 개발과 연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시 관계자는 “안산산업역사박물관은 앞으로 안산시 박물관들을 리드하는 센터로서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며 “박물관을 통해 반월산업단지를 중심으로 성장한 안산시의 애환과 발전, 미래 비전이 제시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시는 최종보고회 의견을 반영해 1월 유물조사용역을 마무리할 예정이며 유물수집 및 관리 조례 제정, 유물보관소 건립 등 본격적인 유물 수집을 추진할 계획이다.

• 문의: 안산시 산업정책과 ☎ 031-481-2851

신선영 명예기자 <woghkah@hanmail.net>

## 단원고 유가족 학부모를 위한 ‘치유공간 이웃’

이웃치유사, ‘청소와 설거지로 치유적 공기를 만드는 사람들’... 따뜻한 소통으로 서로서로 회복 되기를



단원고 유가족 부모들을 위한 민간 주도의 심리치유센터 ‘치유공간 이웃’에서 유가족들은 개별 상담을 받고, 밥을 함께 나누고, 뜨개질을 하거나 한방치료를 받기도 한다. 주말이나 저녁에는 별이 된 아이들의 생일모임도 가진다.

그리고 이곳에서 진행되는 모든 일들은 자원봉사자들이 함께 한다. ‘이웃’에서는 그곳에서 함께하는 자원봉사자들을 ‘이웃치유자’라고 부른다. 이웃치유자들은 이곳에서 청소를 하고, 반찬과 간식거리를 만들고, 마사지를 하고 텃밭 등을 가꾼다. 뜨개질 및 압화제작 수업 등의 재능기부로 함께하는 봉사자들도 볼 수 있다.

‘이웃’에 발걸음을 하는 봉사자들의 스펙트럼은 꽤 넓다. 대학생부터 주부, 직장인, 노인까지 안산에 사는 분들 뿐 아니라 서울이나 의정부 등 인근 도시에서 고속버

스를 타고 오시는 분들까지 다양하다. 요일을 정해 일주일에 한 번씩 이곳에 오는 이웃치유자들이 한결같이 하는 말은 “세월호 이후 무력감에 빠져 있었는데, 안산에 이런 공간이 생겨 뭐라도 할 수 있게 되어 얼마나 감사했는지 모르겠다”는 것이다.

처음에 유가족을 어떻게 대할지 몰라 시선을 돌리기도 미안했다는 봉사자들은 이제 ‘이웃’에서 유가족들과 함께 밥을 먹고 일상적인 이야기를 나누며 오히려 본인들이 이곳에서 치유를 받고 가는 느낌이라고 전한다.

‘이웃’에서는 한달에 한 번 ‘이웃치유자데이’라는 시간을 따로 마련해 봉사자들이 유가족들의 치유를 더 효과적으로 도울 수 있는 방법들을 전하고, 그동안 봉사를 하면서 궁금했던 사항들에 답하는 시간을 가진다.

‘이웃’의 이명수 대표는 “봉사를 하시다보면 ‘이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 회의가 들 수도 있을 텐데, 여러분은 유가족들의 일상을 복원시켜주는 굉장한 조력치유자”라며 “이런 마음을 가진 사람들의 존재를 확인하는 일 자체가 치유”라고 전했다. “여러분들의 존재를 보며 유가족들은 ‘세상은 그렇게 나쁘지 않구나’ 느끼게 되고, 그렇게 세상과 사람에 대한 신뢰를 회복해 가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말한다.

정혜신 박사는 “치유의 핵심은 유가족들이 아이에게 집중할 수 있느냐 없느냐”라며 “어디를 가도 아이와 관계의 끈을 놓치지 않는 것이 중요한데, 유가족들이 아이 이야기를 했을 때 그 이야기를 안절부절하지 않고 들어줄 수 있

는 사람이 주위에 많으면 아이를 중심으로 온전한 애도의 과정을 거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래서 “유가족들 앞에서 아이 얘기를 해도 될까요?” 라고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오히려 유가족들은 아이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만큼 하고 싶은 얘기가 없고, 아이 이야기를 할 때 가장 눈이 반짝인다”며 “유가족들이 아이를 더 많이 느끼고, 완료되지 않은 것들을 충분히 정리할 수 있도록 아이에 대한 이야기를 적극적으로 했으면 좋겠다”고 전했다. 그런데 “유가족들과 대화를 하다보면 자기 아이 이야기도 자연스럽게 나올 때가 있는데, 자기 아이 이야기는 자제하는 게 좋다”고도 덧붙였다.

봉사자 김지희 씨는 “제가 그분들에게 직접적으로 큰 도움이 되지는 못하겠지만, 같은 공간에서 마음을 함께 하고 기도하고 있다는 거, 그 기(氣)는 전해질 거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봉사자 김도현 씨는 “가끔 일상에서 스트레스 받을 때가 있는데, 여기서는 고구마를 꺾는 단순한 일만 하는데도 이상하게 위로를 받고 있다는 느낌이 들 때가 있다”며 “무엇보다 이곳에서 같은 마음으로 봉사하시는 귀한 분들을 만나서 반갑다”고 했다.

• 문의: 치유공간 이웃 ☎ 031-403-0416

송보림 명예기자 <treehelper@naver.com>

# 4·16 희망과 길찾기, 안산시민 1,000인 대토론회 개최

2월 7일, 올림픽기념관에서 열려

‘4·16 희망과 길찾기, 안산시민 1,000명에게 듣는다’라는 제목으로 안산 시민 1,000명이 참가하는 대토론회가 오는 2월 7일 올림픽기념관에서 열린다.

이번 토론회는 세월호 참사 후 안전한 사회를 만들고 지역공동체를 회복할 수 있는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지역사회 시민들이 함께 머리를 맞대고 변화와 희망을 위한 공동의 해법을 모색하기 위해 기획되었다.

지난 5일 안산지역 민관단체 80여 개가 참가한 세월호 안산시민 원탁회의 추진위원회는 화랑유원지 합동분향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안산시민들의 토론회 참가를 호소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안산온마을센터 센터장은 “세월호로 최대 피해를 입은 안산이 시간이 지나면서 시민들의 의견이 갈라지는 등 2차 3차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며 “가능한 많은 안산시민들이 마음을 모으고, 지역사회가 나서서 세월호 이후 안산의 발전방안을 스스로 찾아보는 시간을 가지려 한다”고 말했다.

지난해 10월 안산온마을센터와 희망재단은 1000인 원탁토론회 제안한 후 2달간 추진위원회를 구성하는 등 토론회 준비를 진행해 왔다. 안산시민 1000인 원탁회의 추진위원회에는 주민자치위원회 협의회와, 통반장 협의회,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연합회 등 풀뿌리 시민 조직과 안산의사협회, 변호사 협회 등 전문가 단체, 종교단체, 시민단체 80여개가 참가하고 있다.

이번 토론회는 각계각층의 시민 1,000명이 100개의 원탁테이블에 나눠 앉아 대주제 공유, 안건 제출, 그룹별 토론, 투표의 순서로 의견을 수렴하는 새로운 형태의 토론회다. 기존의 전문가 중심의 토론회와 달리 시민들이 공동의 관심사를 그룹별로 편안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개방형 좌담회 형식으로 진행된다. 참석자들이 각자가 나누고 싶은 안



건을 제안하면 그룹별로 나눠 토론을 한 후, 투표를 통해 지역 회복 과제의 우선 순위를 정하게 된다. 이런 오픈스페이스 방식의 토론회는 참가자들이 아무리 많아도 안전별로 그룹이 나뉘지 않기 때문에, 시민들이 서로의 의견을 충분히 경청하면서 구체적으로 행동할 수 있는 실천계획들까지 나눌 수 있어, 생각보다 큰 파급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

오픈스페이스 방식의 문제해결 사례를 보면, 9·11 참사 후 뉴욕시는 무역센터 재개발안을 결정하기 위해 뉴욕시민 4,000명의 의견을 모아 추모공원인 ‘그라운드제로’를 조성했으며, 카트리나 태풍피해를 입은 뉴올리언즈도 열린 토론회 형태로 피해 복구 우선순위를 정했다. 국내에서는 수원시와, 경기도 교육청, 시흥시 등 지방자치단체들이 시민들의 목소리를 정책에 직접 반영하기 위해 다양한 규모의

열린 토론회를 진행했다.

안산시민 1,000인 대토론회는 사전조사를 통해 세월호에 대한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한 후, 이를 바탕으로 토론 주제를 결정해 2월 7일 오후 1시부터 올림픽기념체육관에서 본 토론을 진행하게 된다.

학생과 직장인, 노인, 주부, 공무원 등 세월호 참사에 관심이 있는 사람이면 누구나 이번 토론회에 참여할 수 있다. 안산시민 1,000인 대토론회에 참가를 원하는 시민들은 토론회 사무국으로 신청하면 된다.

• 문의: 안산시민 1000인 대토론회 사무국 ☎ 031-401-4160  
송보림 명예기자 <treehelper@naver.com>

## ‘슬픔만한 거름이 어디 있으랴’

상처치유와 희망을 향한 움직임... 안산문화재단, 세월호 아픔 담은 문예지 발간



안산문화재단은 지난 12월 29일, 세월호 참사의 아픔을 함께 나누고 이를 희망으로 승화시키기 위한 시민 문예지 ‘슬픔만한 거름이 어디 있으랴’를 발간했다.

세월호 참사로 유가족과 안산 시민들이 겪은 아픔을 문학 통해 승화시키고 이를 통해 치유와 지역공동체의 가치를 재발견하자는 취지의 ‘희망의 몸짓 프로젝트’로 기획되었다.

문화체육관광부의 2014년 지역문화재단 역량 강화 사업으로 선정된 ‘희망의 몸짓 프로젝트’는 글쓰기 특강, 워크숍, 시민 문학공모를 통해 전문가와 시민이 함께 참여하는 열린 문예지를 만들어냈다.

‘슬픔만한 거름이 어디 있으랴’는 허수경 시인의 시 제목이자, 문학공모에 참가한 시민의 작품명으로 세월호의

상처를 극복하자는 문학적 의미가 잘 담겨있다는 평가다. 허수경 시인도 취지에 공감하고 기꺼이 제목 사용을 허락했다.

문예지는 전체 4개의 챕터로 구성되었다. <Memory>는 세월호 침몰사고 이후 주요 상황을 월별로 재구성해 화보로 수록했으며 챕터1 <노란 리본을 묶으며>는 유가족과 자원봉사에 나선 지역주민들의 이야기를 인터뷰 형식으로 구성했고, 챕터2 <아픔을 나누다>에는 국내외의 추모 메시지를 담았다. 그리고 챕터3 <꿈짓! 희망을 노래하다>에는 시민문학특강 ‘나도 작가다’ 소개와 함께 문학공모에 참여한 60여 시민의 작품을 실었다. 챕터4 <안산의 꿈>은 슬픔을 거름 삼아 희망을 꿈꾸는 안산의 미래에 대한 이야기를 담았다.

시민 문학작품의 심사를 맡은 안산문인협회 측은 프로작가들의 능숙한 글은 아니지만, 마음속 깊은 곳의 이야기를 끄집어낸 안산 시민들의 진심이 담겨있어 감동적이라는 평가를 했다.

안산문화재단은 ‘희망의 몸짓 프로젝트’의 결과물인 시민문예지 발간을 계기로 매년 전시, 예술교육, 공연 등 다양한 형태로 문화치유 사업을 진행할 계획이다. ‘슬픔만한 거름이 어디 있으랴’는 2천 부를 발간, 세월호 유가족

들에게 헌정하고 국내 주요 도서관과 공공기관에 무료로 배포한다.



한편, 안산문화재단은 안산문화예술의전당 개관 10주년을 기념해 ‘메이드 인 안산’의 저력을 볼 수 있는 안산문화재단 10년사 ‘문화의 지평을 엮다’를 발간했다.

이 책자는 2004년부터 안산문화재단 출범이후 2014년까지의 자체제작공연, 주요 기획공연, 전시, 축제, 시민과 함께했던 사업 등을 한눈에 알 수 있도록 구성했다.

기획홍보부 고정범 부장은 “숨 가쁘게 달려온 10년이라는 시간을 오롯이 담아내기가 그리 쉽지는 않았지만 안산문화재단 10년을 기억하고 앞으로의 10년을 전망하며 의지를 다질 수 있는 기회였다”며 “우리의 역사를 담은 이 책이 문화예술 발전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기 바란다”고 말했다.

• 문의: 안산문화재단 기획홍보부 ☎ 031-481-4047  
신선영 명예기자 <woghkah@hanmail.net>

공연정보

## 제5회 난타콘서트 '세상을 두드리다'



안산문화예술의전당 해돋이극장에서는 1월 24일(토) 제5회 난타콘서트 '세상을 두드리다'를 공연한다.

작년 한 해 세월호 참사로 안산 시민은 너무나 힘든 시기를 보냈다. 움츠려있는 안산 시민을 위해 한국타악퍼포먼스협회 NANTA in ANSAN이 난타 콘서트를 준비한다.

한국민족예술인총연합회 안산지부, 안산새사회연대 일다가 후원하는 난타콘서트의 수익금은 안산지역 한부모가정, 조손가정 아이들의 교육 프로그램 지원에 쓰일 예정이다.

한국타악퍼포먼스협회 NANTA in ANSAN은 2010년부터 현재까지 새로운 타악의 모습을 끊임없이 연구하고 발전시키며 창의적이고 독특한 타악 음악 및 흥겨운 난타 퍼포먼스는 물론, 재활용품과 폐자재 등을 활용한 창작 타악, 그리고 전통 타악의 신명 위에 서양음악, 월드 타악과 코믹한 요소들을 결합, 장르를 초월하는 퓨전 난타콘서트로 관객과 소통하는 색다르고 재미난 공연을 만

들고 있다.

NANTA in ANSAN은 누구나 쉽게 배울 수 있는 국악 장단과 대중음악을 접목시킨 유아난타 교육, 초·중·고 방과 후 학교수업, 기업연수 등의 난타교육 활동을 하고 있으며, 어르신을 위한 무료공연, 방방곡곡 찾아가는 문화공연 등 다양한 활동을 펼치고 있다.

최근에는 fire show, LED 퍼포먼스, 물 난타 등 타악기 연주와 다양한 퍼포먼스로 다양한 볼거리를 제공하고 있다.

2012년에는 전국 지역아동센터협의회 총회, 안산국제거리극, 안산시근로자종합복지관 체육대회 등 축제에서 공연을 했으며, 2013년에는 대구 3.1절 기념 전야제, 안산시 어린이날 행사, 충청남도청 식품안전의날 행사, 스카이 하우스 세계 챔피언십 한국대회, 6.15공동선언기념 안산 평화걷기대회, 한빛방송 감골축제를 비롯해 장애인 종합복지관 체육대회, 과천경마공원 장애아동 재활승마 한마당 축제 등으로 관객과 소통했다.

이번 제5회 난타콘서트는 공존(共存), 무조건, 여행을 떠나요, 그대와 함께 나비처럼, 도도한 유혹, 천년의 사랑, 콘월에서의 아침, 무한질주, RUNAWAY, 두근거림, 빛의 노래, 신평(新風)을 연주하며 팬플룻 연주도 마련했다.

북의 울림으로 연주자와 관객이 어우러져 가슴 속에 잠자고 있던 열정을 다시 끌어올려 2015년을 활기차게 맞기를 기대한다.

- 일 시 : 1월 24일(토) 오후 7시 30분
- 장 소 : 안산문화예술의전당 해돋이극장
- 관람료 : 전석 1만원
- 연 령 : 8세 이상
- 문 의 : 안산문화예술의전당 ☎ 080-481-4000  
한국타악퍼포먼스협회 NANTA in ANSAN ☎ 031-408-8305

선선영 명예기자 (woghkah@hanmail.net)

독/자/투/고

## 우리 안산의 새싹들이 늘어나길 바라는 마음

가까운 주부들 모임에서 한달에 한번씩 찾아 뵙는 경로당 어르신들께 갔는데 한 할머니가 휴대폰에 담겨진 자기 손자의 얼굴을 내미셨다. 그걸 본 옆 사람도, 또 그 옆 사람도 슬그머니 손 전화를 꺼냈다. 화면에 찍혀있는 것은 할머니들의 손자들.

“이거 봐. 나도 가지고 다녀. 우리 손녀 너무 예쁘지?”

자식자랑, 남편자랑, 돈자랑 같은거 팔불출이라지만 할머니들에게 손주는 백번 천번 들여다 보고 어루만지고 자랑해도 부족함 없는 그런 존재이자 보물들이었다. 다 똑 같았다.

약속이라도 한 것처럼 손자, 손녀 사진을 담고 다닌다는 사실이 놀랍다. 손주를 예뻐하는 그 표정들 역시 하나 같이 밝고 환했다.

좀 전까지만 해도 그저 연세 드신 평범한 노인분들이었고, 누구는 일본에 가서 온천을 하고 왔네, 누구는 무슨 무슨 핸드백을 들고 다니네, 누구누구는 비싼 스마트폰을 샀네, 누구누구는 이마에 보톡스를 했네 이런 말들만 나

누던 어르신들이 갑자기 <손주 자랑꾼들>로 변해 버렸다.

화제는 계속 손자 손녀로 이어졌다.

“세상에서 손자처럼 예쁜 아이는 없을 것 같아.” “난 집에서 손자가 늘 보고 싶는데 며느리가 아이 공부 시킨다고 보내 주질 않아.” 등등

손자처럼 예쁜 아이는 없을 것 같다는 그 말에 서로 고개를 끄덕였다.

할머니들에게 손주들이 예쁜 까닭은 그 아이들이 바로 '새싹'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지금 새싹의 숫자가 늘지 않고 있다. 출산 인구가 갈수록 줄어들고 있는 것이다.

우리 안산도 외부에서 유입되는 인구는 늘어날지 몰라도 출산 인구는 날로 감소 추세다.

필자도 과거 부모님이 낳으신 6남매중 셋째이다. 그 육남매들은 모두 결혼을 해서 아이들을 낳았다. 형제들중 많이 낳은 경우엔 셋, 못해도 다들 둘씩은 낳았으니 '기본'은 한 셈이다.

하지만 지금은 그나마도 결혼도 안하고, 아이도 안 낳

고, 기껏해야 하나만 낳는 사람들도 많으니 걱정일수밖에 없다.

어느 기관에서 5월에 어린이날 선물을 무엇으로 받고 싶은지에 대해 물었다. 어린이들 응답 1위가 스마트폰 같은 디지털기이었다고 한다.

그래서 나도 그 기관의 흥내를 내어 동생네 조카들에게 어린이 날 받고 싶은 선물을 물었다. 그랬더니 대뜸 주문이 들어왔다.

“동생 하나 주세요.”

헉, 물건일 줄 알았는데 의외의 대답이었다. 그리고 보니 동생네도 아이가 겨우 하나 뿐이었다.

아이가 원하는 대로 고모가 돈을 대어 에버랜드 구경을 마치고 돌아왔지만 나머지 하나는 내 능력 밖의 일이다. 그것은 제 부모의 몫이다.

우리 아이들에게 그 예쁜 선물을 듬뿍 주는 사회였으면...

이민경 (상록구 성안길67)

# 안산시의회, '올해도 소통하는 자세로 지역현안 풀 것' 새해 맞은 전체회의 통해 새로운 다짐 다져



안산시의회는 지난 1월 6일 올해 첫 의원 전체회의를 열고 안산시 간부공무원들과 의회 주요 현안 협의를 가졌다. 의회 대회의실에서 열린 의원 전체회의에는 시의원들과 시 집행부 및 의회 사무국 직원들이 참석했으며 2015년도 조직 개편에 따라 새롭게 부임한 시 간부 공무원 및 의회 사무국 전출입 공무원들과 상견례 및 의원들 간 새해 덕담을 나누는 시간을 가졌다. 또한 의회 상임위원회 소관 업무 분장에 대한 의원 의견 수렴과 상임위원회별 활동사항 보고, 의원 연구단체 운영계

획 협의 등 의회 주요 현안에 대한 논의도 이루어졌다. 성준모 의장은 "7대 의회 개원 이후 지난 6개월 동안 의회 사무실의 불을 밝혔던 의원들의 열정에 감사의 말씀을 전한다"면서 "올 한해도 상호 존중과 소통 확대를 통해 지역 경제 활성화를 비롯한 현안 문제 해결을 위해 앞장서자"고 말했다.

김은미 명예기자 (iami34@hanmail.net)

## 공단 안이 흰해졌어요

### 안산시, 한뼨갤러리 사업 추진해 문화적 심이 있는 거리 조성



안산시는 스마트허브의 진입로와 낡은 공장 벽면, 옹벽, 굴뚝 등 도시미관을 저해하는 공단환경에 예술 작품을 그려 넣고, 조각 작품을 설치하는 '한뼨갤러리' 사업을 추진해, 출근해서 하루 종일 공장에서 근무하는 근로자들과 공단지역을 오가는 시민에게 잠시나마 안정적인 즐거움을 주고 있다.

'한뼨갤러리'사업은 조성된 지 35년이 지난 안산스마트허브의 노후 된 기반시설과 공장건물 등의 환경개선이 필요해 2011년부터 추진해 왔다. 2011년에는 경기도립미술관을 사업자로 선정해 STX에너지(주), 해성아이다(주), 대한약품(주)의 공장 담 벽에 벽화를 그려 넣었고, 지난 2012년과 2013년에는 윤진산업(주)과 삼목강업 등의 외벽에 김용호 화백의 '자작나무 숲'을 재현한 620㎡ 벽화를 그려 단조롭고 삭막한 공단거리를 분위기 있게 바꿔 놓았다. 지난 2014년에는 목내동 호진플라스틱과 초지동의 거성기업, 동민금속의 공장 담장을 나무, 숲, 가족 등을 테마로 연두와 녹색 계열의 색으로 채색했다. 연장 533m, 높이 2m, 총 면적 1,067㎡의 공장 벽면에 안산예술대학교 산학협력단이 530㎡에 벽화를 그려 넣었고, 김용호 화백의 디자인을 바탕으로 시공업체가 537㎡에 벽화를 완성했다.



안산시는 2015년도에도 2~3월 안으로 사업대상지역 조사와 선정을 완료하고 1천여㎡에 벽화를 그려 넣을 예정이다. 노후 된 안산스마트허브에 색을 입혀 삭막하고 건조한 공단이미지를 산뜻하게 바꾸고, 공단 근로자에게 볼거리를 제공함으로써 공단환경을 자연 친화적이고 문화적 영감을 주는 거리로 개선해 나아간다는 계획이다.

•문의: 안산시 기업지원과 ☎031-481-2097

백미란 명예기자 (whity0218@naver.com)

## 2015년, 안산시 청정에너지 자립 도시 조성 박차 2018년까지 신재생에너지 8.68%, 청정에너지 65% 자립화 추진

안산시는 현재 신재생에너지 자립율 5.33%에서 2018년 8.68%로 자립율을 높이기로 하였으며, 청정에너지(안산복합화력 LNG 사용) 자립율을 60%에서 2018년까지 65% 에너지 자립율을 높여 에너지 자립도시를 조성할 계획이다. 지난 2001년 육도 태양광 60kW 발전을 시작으로 현재까지 공공부문 125곳 및 민간부문 329곳, 총 454곳 27만3천330kW 설비용량으로 연간 5억7천788만3천726kW를 발전, 지난해 시 전체 전기사용량 기준 5.33%의 에너지 자립 도시로 성장했다.

시는 에너지 자립도시 조성 위해 급변 상반기에 지역에너지계획을 수립하여 지속가능한 에너지 자립 도시로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전국에서 최대 규모의 민관협업체로 운영하고 있는 안산 에너지절약 마을 만들기 위원회를 동별로 확대하고 시민지하주차장 LED 등기구 교체사업을 추진할 아파트, 공동

주택등에 최대 2천만 원까지 지원하여 2018년까지 지하주차장 전부를 LED등으로 교체할 계획이다.

가정용주택에 태양광(3kW)을 설치하는 시민에게도 정부에서 지원하는 사업비 2백8십만 원 이외에도 특별지원금 2백만 원을 추가 지원하여 신재생에너지를 더욱 확대할 계획이며, 상록구 송호마을 85가구 전부를 주민과 협의하여 옥상지붕에 태양광을 설치하여(현재 27가구 설치 완료) 그린 에너지 마을로 조성할 계획이다.

시는 공공부문으로는 에너지 자립 도시를 조성하는데 한계가 있다고 판단하여 민간부문에서 신재생에너지 설치를 확대할 수 있도록 산업단지내 연료전지 발전소건립 지원과 RPS(신재생에너지 의무할당제)를 활용한 시민햇빛발전소가 확대될 수 있도록 조례 개정 등을 통하여 금융기관 융자금이자 일부 지원 등을 추진할 예정이다.

•문의: 안산시 녹색에너지과 ☎031-481-2238



누에섬 풍력발전소



육도 태양광 설치

## 중앙도서관이 추천하는 책

우리가 아득하게 삶의 바닥을 찍었을 때는 그저 들어주는 이가 그리운 법이다. 결국 우리에게 필요한 기적은 사람 그 자체이다. 인간 내면에 잠재한 선의에 대한 믿음일 것이다.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 칭찬은 아이들 뿐 아니라 어른도 춤추게 한다. 1월, 도서관에서 추천하는 책을 읽으며 긍정적인 생각으로 무지개 원리를 실천해보자.

### 아동 「칭찬 먹으러 가요」 고대영 / 길벗어린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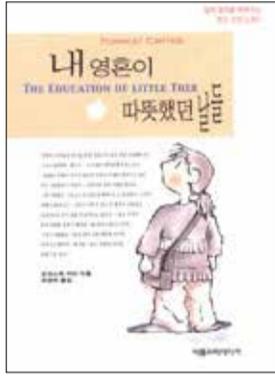


엄마 아빠와 함께 처음으로 산에 간 지원이와 병관은 여러 사람들을 만난다. 어른들은 저마다 아이들을 그냥 지나치지 않고 “대단하구나. 힘내라. 몇 살이니? 씩씩하네. 용감하네”라는 말로 기운을 북돋워준다. 지원이와 병관에게 ‘산을

오르는 것’은 처음 아빠가 산에 가자고 했을 때처럼 귀찮거나 싫은 일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관심과 사랑을 받는 ‘즐겁고 특별한 기회’가 된다.

지지고 응원해 주는 어른들 속에서 아이들은 설레는 마음으로 또 다른 새로운 경험을 하며 성장한다는 주제가 담겨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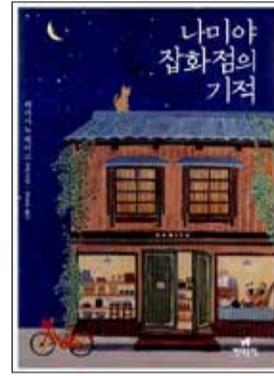
### 청소년 「내 영혼이 따뜻했던 날들」 포리스트 카터 / 아람드림미디어



이 책은 인디언의 세계를 어린 소년의 순수한 감각으로 묘사한 소설이다. 따뜻한 할아버지의 손으로 표현되는 소박하고 진실한 인디언의 삶은 위선과 탐욕으로 점철된 백인사회의 모습과 좋은 대비를 이룬다.

책을 통해 영혼은 따뜻해지고, 삶의 행복이란 많이 소유하는 것들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얼마나 현재를 즐겁게, 따뜻하게 사랑과 이해로 채우고 있느냐, 그런 관계를 주위 사람들과 맺고 있느냐에 달려 있다는 것을 알려준다.

### 성인 「나미야 잡화점의 기적」 히가시노 게이고 / 현대문학



나미야 잡화점은 30여 년간 비어 있던 오래된 가게이다. 어느 날 이곳에 강도짓을 저지르고 경찰을 피해 달아나던 삼인조 좀도둑들이 숨어들고, 그날 밤 ‘나미야 잡화점 주인’ 앞으로 의문의 편지 한 통이 도착한다. 의심과 공포를 품고 열어본

편지 내용은 뜻밖에도 고민 상담이었고 이들은 그 간절함에 답장을 보낸다.

무면허 상담가들의 엉뚱한 ‘즉문즉답’ 상담은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흘러가며 시간과 공간이 멈춘 특별한 공간 ‘나미야 잡화점’의 오랜 비밀이 밝혀지고, 하룻밤의 기적이 일어난다.

• 자료제공 : 중앙도서관 (☎ 031-481-3864) 신선영 명예기자 (woghkah@hanmail.net)

## 작은 도서관, 책을 말하다

### 제3회 경기도작은도서관 축제 ‘한 편’ 열려

지난 1월 15일 안산문화예술의전당에서는 경기도가 주최하고 경기도작은도서관협의회와 경민대학교 독서스페셜리스트교육원이 주관하는 제3회 경기도작은도서관 축제 ‘한 편’이 열렸다. 이번 축제는 안산·용인·부천·고양·성남·파주·광명 작은 도서관협의회 관계자가 기획해 준비하였고, 경기도 내 31개 시군에서 600여 명의 관계자가 참가했다.

‘작은 도서관, 책을 말하다’라는 주제로 김성란 추천담작은도서관장, 오혜자 청주초롱이네도서관장, 박영주 용인시작은도서관협의회장이 장서개발과 수서와 배가 독서문화 활동에 대해 토론하는 심포지엄으로 축제의 문을 열었다.

작은도서관을 수년간 꾸려온 토론자들은 규모가 작은 도서관이기에 더욱 효율적인 시스템을 도입해 장서점검과 장서평가를 통해 이용자에 대한 서비스를 높일 수 있다는 것

과 도서관 서가에 꽂힌 한 권 한 권이 특별한 책이 되기 위해서는 많은 고민이 필요하다는 것, 프로그램을 위한 프로그램이 아닌 즐거운 책읽기를 통해 꿈을 꿀 수 있는 프로그램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심포지엄이 열리는 국제회의장 옆 전시관에서는 ‘세상을 담은 책 한 편’을 주제로 환경, 평화, 세월호 관련 책들이 전시되어 행사장을 찾은 시민들을 맞았다. 특히 세월호 희생자들에게 애도의 글과 그림을 그린 후 팽목항 한편에 전시할 예정인 타이푼미기에 많은 어른들과 아이들이 마음을 담은 모습이었다. 군포에서 아이들과 함께 행사장을 찾은 이주원 씨는 “해마다 축제에 참가하고 있는데 작년에 큰 아픔을 겪었던 안산에서 열려 더 마음이 풀렸다. 아이들과 함께 세월호 관련 책도 보고, 타이일에 위로의 글을 쓰면서 다시는 이런 슬픔이 반복되면 안 된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이어 해돋이극장에서는 배우 권해효 씨가 진행하는 북콘서트가 열렸다. 「우리 몸의 구멍」, 「똥은 참 대단해」 등의 어린이 책을 펴낸 허은미 작가, 하예은 어린이와 함께 ‘그림

책 하면 떠오르는 것’, ‘도서관은 나에게 어떤 곳인가’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 ‘나의 책’을 소개하는 시간을 가졌다. 허은미 작가는 “여러 번 읽은 책이었지만 내가 처한 상황에 따라 감동적으로 다가온 경험을 나누고 싶었다. 책 한 권이 주는 위로는 대단히 크다”고 말했다. 북콘서트는 고양시작은도서관 책놀이터 노래단 ‘시끌이들’의 자작곡 노래 공연, 어쿠스틱 밴드 ‘신나는 섬’의 흥겨운 연주와 정희성 시인이 ‘한 그리움이 다른 그리움에게’를 낭송하며 마무리를 지었다.

경기도에는 2015년 1월 현재 공립 257개, 사립 157개 등 총 1,314개의 작은 도서관이 운영 중이다. ‘오래 머물러도 불편하지 않고 또 오고 싶은 도서관, 도서관을 찾는 한사람에 관심을 두는 따뜻한 시선은 작은 도서관은 특징이자 매력’이라고 오혜자 장관은 말한다. 작은 공간이 주는 아늑함, 한 권의 책이 주는 위로가 그리움 때 작은도서관으로 가자.

김은미 명예기자 (iami34@hanmail.net)



## 와동주민센터에는 ‘애완곤충 전시 체험전’ 있다

다양한 표본부터 살아있는 곤충까지 전시, 방학 맞은 학생들에게 호응 좋아



### 신기한 곤충이 한 자리에... 애완곤충체험전

와동주민센터에서는 겨울방학을 맞아 애완곤충 전시 및 체험전을 마련했다. 몸집이 큰 나방과 대벌레, 장수풍뎡이 등 다양한 곤충 표본과 귀뚜라미, 개미, 물방개, 전갈, 호박벌, 타란툴라 등이 전시되어 있다. 장수풍뎡이의 일생을 유충부터 성충이 되기까지 표본과 설명을 덧붙여 놓은 액자 주변에는 어린아이들의 발길이 한동안 멈춰 있었다.

방학을 맞아 이웃과 함께 체험전을 찾은 조미옥 씨는 “집 근처에서 하는 전시라 큰 기대 없이 찾아왔는데 다양한 곤충 표본과 살아있는 곤충까지 있어 깜짝 놀랐다. 아이들이 관심을 보이고 집중해 보는 모습을 보니 기분이 좋고 알찬 전시를 가까운 곳에서 만날 수 있어서 더욱 좋다”고 말했다.

친구와 함께 전시장을 찾았다는 이성후 군은 “집에서 장수풍뎡이 유충을 키워 본 적이 있었는데 여기에서 다시 보니 예전에 키웠던 장수풍뎡이가 생각이 난다. 귀뚜라미를 애완동물의 먹이용으로 키운다니 불쌍하다는 생각이 든다. 그래도 친구와 함께 방학숙제도 하고 재미있는 곤충전도 보니 기분이 좋다”고 말했다.

곤충은 지구상에서 그 수가 가장 많고 종류만 해도 100만 가지가 넘는다. 곤충의 몸은 머리, 가슴, 배 세 부분으로 구분되고 머리에는 더듬이가 1쌍, 겹눈이 1쌍이 있고 가슴에는 2쌍의 날개와 3쌍의 다리가 있다. 최근에는 곤충에 대한 새로운 인식이 확산되고 있다. 현재 국내에서는 번데기,

메뚜기, 백강잠(흰누에)과 굼벵이를 한식적 식품 원료로 사용할 수 있도록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인정받았고 향후 1년간 모니터링을 통해 식품공정에 포함할 수 있을 전망이다. 또한 충북의 한 대학연구팀은 애완곤충 키우기와 곤충 관련 도구를 이용한 심리치유 프로그램에서 곤충이 인간의 자아 존중감 및 삶의 질 향상 등 정서함양에 효과가 있다는 과학적 분석결과를 제시하기도 하였다.

애완곤충 전시를 보면서 아이와 함께 곤충이 우리 삶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이런 저런 이야기를 나누는 것은 어떨까? 1월 23일까지 열리는 이 전시는 와동 좋은마을만들기 추진협의체가 주관하며 판매하는 기념품의 수익금은 전액 불우이웃 돕기 성금으로 적립된다.

• 문의: 와동주민센터 ☎ 031-481-6601

김은미 명예기자 (iami34@hanmail.net)



## 컴퓨터 배우기, 어렵지 않아요

외국인주민센터, 외국인 대상 컴퓨터 수업 인기



안산시 외국인주민센터에서는 외국인 주민을 대상으로 컴퓨터 수업을 실시하고 있다. 지난 1월 10일 오후 2시 외국인주민센터 컴퓨터 교육장에는 파워포인트를 배우기 위해 모인 외국인 여성과 자녀들이 각자 컴퓨터 앞에 앉아 있었다.

조은숙 강사가 4개월 동안 수강할 파워포인트 프로그램에 대한 전반적인 소개와 활용을 예시로 보여주며 수업이 시작되었다. 수강생들은 바탕화면에서 파워포인트 프로그램을 찾아 자기소개하기 프로그램을 직접 만들어보았다. 이름과 전화번호를 첫 장에 쓰고 두 번째 장에서는 자신의 고향 국기를 인터넷에서 찾아 삽입하고 애니메이션을 이용해 글자에 변화를 주었다. 디자인에서 자신의 파워포인트의 디자인을 선택한 후 [F5]키를 눌러 슬라이드 쇼까지 실행해 자신이 만든 프로그램을 확인했다.

안산시다문화홍보학습관에서 다문화강사로 활동하고 있는 박영숙(중국)씨는 “파워포인트를 배워서 중국을 소개하는 프로그램을 만들어 사용하고 있다. 작년부터 배웠지만 더 배우고 싶어서 딸과 함께 왔다. 선생님이 친절하고 쉽게 가르쳐주시고, 다양한 프로그램을 무료로 배울 수 있어 정말 좋다”고 했다. 15년 전 한국에 와 결혼을 한 박영숙씨는 한국생산성본부 주최 2014년 제8회 i-Top 경진대회에서 다문화부문 특별상을 수상하기도 했다.

한글과 인터넷, 엑셀, 파워포인트 과정을 각각 4개월씩 총 1년 동안 배워 시험을 치러 A등급을 채우면 공인강사를 취득할 수 있다. A등급은 주어진 과제의 80~100%를 정확히 해결할 수 있는 능력 수준을 말한다. 공인강사를 취득하면 국가공인 ITQ과목을 교육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진다. 안산시외국인주민센터에서는 한국을 제2의 고향삼아 사는 외국인들이 다양한 교육프로그램을 통해 자신이 성장함은 물론 가족과 사회와 소통하는 도구로 활용하는 모습이 다문화사회가 나아가야 할 바람직한 모습으로 비친다.

김은미 명예기자 (iami34@hanmail.net)

## 사2동 주민센터 맞나요?

계단 공간에 디자인을 입히다

사2동주민센터가 달라졌다.

1997년도에 문을 연 사2동주민센터는 17년된 노후된 청사로 그간 지속적인 관리에도 불구하고 계단의 묵은 때 등 세월의 흔적을 지울수 없는 공간이 곳곳에 남아 있었다. 그 계단공간이 그림이 있는 화사한 공간으로 단장되었다. 지난 12월 그동안 죽어있던 계단공간은 층마다 테마가 있는 디자인공간으로 탈바꿈되었다. 1층은 청렴, 2층은 에너지절약, 3층은 건강, 4층은 금연을 주제로 그림이 완성되었으며, 층마다 실내에서 숲을 걷는 듯한 ‘실내 도시숲’ 공간도 같이 조성되었다.

동 주민센터는 문화사랑방의 예술작품 갤러리 공간과 연계하여 지역 내 어린이집, 유치원과 연계하여 어린이에게 동화 속을 걷는 듯한 청사를 체험하고 에너지절약과 건강에 대한 교육장소로 연중 개방할 예정이다.

사2동 관계자는 “동 주민센터 계단을 걸으면서 관공서가 권위적이고 경직된 곳이라는 이미지를 벗어나, 지나가는 주민 누구나 한번쯤 걸어보고 자주 찾을 수 있는 친숙한 공간이 되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연재 안산탐방

# 목내동

木內洞

## 지명 유래

조선시대에는 안산군 와리면(瓦里面) 이목리(梨木里, 또는 이목동(梨木洞)와 능내리(陵內里)였다가, 1912년 2월 5일 이목동과 능내리를 합쳐 목내리(木內理)라 하였다. 총독부령 제111호에 따라 1914년 3월 1일 안산군이 시흥군(始興郡)에 통합되었고, 4월 1일 와리면이 군자면(君子面)으로 통합·개칭 되어 시흥군 군자면 목내리가 되었다. 그 후 법률 제3798호에 따라 1986년 1월 1일 안산시 목내동으로 되었다.

목내동은 이목동(梨木洞)의 '목(木)'자와 능내리의 '내(內)'자를 따서 '목내동'이라 칭했다. 이곳은 일찍이 조선 초기 비운의 임금 단종의 생모인 현덕왕후의 묘를 능안에 쓴 후부터 널리 알려졌다.

## 옛 지명 유래

### 능안(陵內)

조선시대에는 능내리(陵內里)라 칭했으며, 배나물 북쪽에 있던 마을이다. 전주 이씨를 비롯하여 경주 최씨·김해 김씨·김녕 김씨 등이 세거해 80여 호가 살던 대촌(大村)이었다.

마을 북쪽지역은 웃말, 남쪽지역은 아랫말이라 각각 불리다가 1979년 폐동되어 반월공업단지(현 스마트허브)가 조성되었다.

'능안'이란 마을 명칭은 조선 세종대 문종의 비(妃)인 안동권씨(현덕왕후)의 묘(소릉)를 아랫말과 성곡동 무들 사이(현 단원구 목내동 산47)에 썼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 능은 세조 때에 이르러 파괴되었고, 종종 때 복권되어 문종의 능인 현릉(顯陵)으로 전장되었다. 이 능지(陵址)에서 호상(虎象) 1쌍이 출토되어 현재 이화여자대학교 박물관에서 소장하고 있으며, 1982년 경희대학교 박물관에 의해 학술조사가 실시되었다. 능안마을에서는 해마다 음력 10월 1일 웃말 소재 도당산 정상에서 도당제를 지냈다. 난간석주 하나와 석양(石羊) 1개가 안산문화원 야외에 전시되어 있다.

### 배나물

조선시대에는 이목리(梨木里)라 불렀다. 조선 제6대 임금인 단종의 생모 현덕왕후의 묘가 능안에 있었는데

구전에 의하면 이를 세조가 파괴해 바다에 버렸다고 한다. 그런데 왕후의 관이 바다로 가지 않고 능안 아랫말과 웃말 사이에 있는 우물에 닿았다 한다. 그래서 그곳을 관우물[棺井]로 되었다고 한다. 또 이곳에 돌배나무가 많이 자생하고 있어 배나무가 '배나물'로 되었다는 설도 있다.

관우물은 마을의 대동우물로 이 물을 마시면 얼굴이 희어지고 살결이 부드러워진다고 하여 부녀자들이 많이 마셨다고 한다. 능안 서쪽에 위치해 있던 배나물은 전주 이씨과 안동 김씨 등의 세거지로 남쪽지역은 큰말, 북쪽지역은 작은말이라 불렀다. 폐동 때(1979)는 60여 호가 있었고, 현재는 반월공단단지(현 스마트허브)로 변모되었다.

자료제공 : 안산문화원(안산시사 제5권)

이선희 명예기자 <iamyou70@hanmail.net>  
사진 성연범 명예기자 <yb1244@naver.com>



# 안산의 자랑

## 안산시 종이미술관

글.그림 이영호(kaljebi05@naver.com)



- 위치 :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대남로 233 (대부남동)
- 문의 : 032.887.0606 (www.paperartmuseum.kr)

### 2015년 사회공헌형 노인일자리사업 '옛날놀이선생님' 서비스 신청 안내

전래놀이교육을 통하여 참여 노인에게는 경제적·사회적 활동의 기회를 제공하고교육을 통한 지식습득 및 전문기술을 배움으로써 전래놀이를 계승·발전시키며, 세대 간 격차를 해소하기위해 2015년도 사회공헌형 노인일자리사업 '옛날놀이선생님'사업을 실시한다.

- 신청기간: 2015년 1월 2일 ~ 30일
- 신청서류: '옛날놀이선생님' 서비스 신청서 1부
- 신청방법: 서비스신청서 작성 후 팩스 (☎ 031-439-8801) 신청
- 문 의: 최지수 사회복지사 (☎ 031-401-8181)

### 안산시립합창단 특별기획공연 2015 미국합창지휘자협회(ACDA) National Conference 초청기념음악회



- 일 시: 2015. 1. 29 (목) 19:30
- 장 소: 안산문화예술의전당 해돋이극장
- 내 용: 창작곡 및 합창명곡  
[벤틀노래, 아리랑, Sanctus, Agnus Dei 등]
- 출연진: 안산시립합창단
- 문 의: 안산시립합창단 (☎ 031-481-4098)  
안산시 문화예술과 (☎ 031-481-2064)

### 안산시 주말농장 신청안내

#### 분양되는 농장

단원농장 1,855구좌(신안산대 옆), 화랑농장 315구좌(단원구청 옆), 제2화랑농장(화랑유원지 내) 212구좌, 신길농장 545구좌  
※1구좌당 5평(5,190원)으로 유료로 분양

#### 신청

- 필요서류: 등본(공고일 이후 발행분)
- 접수날짜: 2월 5일 10:00 ~ 2월 9일 18:00 (주말접수가능)  
농업기술센터(상록구 향기울로222)에 방문 접수

문의: 안산시민원콜센터(☎ 1666-1234) / 영농소득계 (☎ 031-481-3764)



### 다자녀 가정 교복비 및 학자금 지원 안내

#### • 교복비

대 상: 신청일 현재 부 또는 모와 함께 3년 이상 안산시에 거주하는 셋째 이상의 자녀로 중학교 및 고등학교 입학하는 자

- 지원액: 30만원 (1회)  
※ 입학년도의 신청분에 한하여만 지급가능
- 신청서류: 신청서, 재학증명서, 통장사본

#### • 학자금

대 상: 신청일 현재 부 또는 모와 함께 5년 이상 안산시에 거주하는 넷째 이상의 자녀로 고등학교 재학 중인 자

- 지원액: 공납금(등록금)  
※ 해당년도의 학년 분 학자금에 한하여만 지급가능
- 신청서류: 신청서, 납입증명서, 통장사본

#### • 신청기간: 연중

접수 및 문의처: 거주지 동 주민센터, 여성가족과 (☎ 031-481-2604)

### 2015 경기창작센터 제3기 안산시 입주작가 모집

- 모집인원: 2명
- 입주기간: 2015. 3월 ~ 2016. 2월(1년)
- 접수기간: 2015. 1. 19 ~ 1. 23
- 접수방법: 직접방문 제출 (우편접수 불가)
- 접 수 처: 안산시청 문화예술과 (안산시 단원구 화랑로 387)
- 모집대상: 시각예술분야  
※ 회화, 조각, 영상미디어, 건축, 디자인, 사진, 공예
- 문 의: 안산시 문화예술과 (☎ 031-481-2795)

### 2015 문화예술진흥기금 지원대상자 공모

- 사업기간: 2015. 3월 ~ 11월
- 지원대상: 공고일 현재 안산시에 1년이상 계속하여 소재한 단체 및 개인
- 지원분야: 문학, 미술, 음악, 전통문화 등의 문화예술활동
- 지원한도: 사업내용 및 규모에 따라 최대 500만원 이내에서 지원
- 공 고: 2015. 1. 19 (월) ~ 1. 30 (금)
- 공고방법: 안산시 홈페이지 게시
- 접 수: 2015. 2. 2 (월) ~ 2. 6 (금)
- 접수방법: 안산시청 문화예술과 방문 및 우편접수
- 문 의: 안산시 문화예술과 (☎ 031-481-2795)

청림<sup>한</sup> 세상 청림<sup>한</sup> 안산